



루이 비통의 특별한 집필실

루이 비통 가비네 데크리튀르 전시관 개관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생제르맹데 프레(Saint Germain des Prés). 루이 비통은 지난해 12월 이 유서 깊은 장소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 공간을 선보였다. 집필실(Cabinet d'Ecrites)이라고 이름 붙은 이 전시장은 만년필, 전문가용 잉크, 크리스털 잉크병 등 루이 비통 문구 세계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17세기 집필실과 19세기 서재에서 영감을 얻은 이 공간은 격조 높은 제품들로 품격 있고 정서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루이 비통은 앞으로 이 공간에서 각종 장인들을 위한 정기 모임을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예술가와 장인들의 만남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www.louisvuitton.com



전통 가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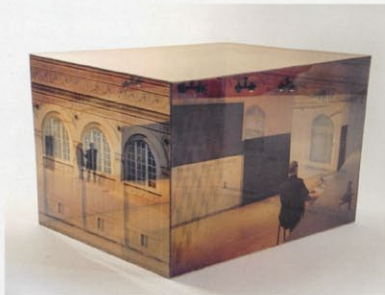


사진으로 만든 조각

<환상공간>전

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사진이 회화가 갖고 있던 아우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사진 조각가 고명근의 작품을 본다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 사진과 건축, 조각을 혼합해 만든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회화적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 작가는 1980년대 후반부터 모은 낡은 건물 이미지를 OHP 필름에 출력한 뒤 인쇄된 이미지를 여러 장 겹쳐 합성수지 플렉시글라스(plexiglass)에 압착시키고 각 모서리를 인두로 접합했다. 사진으로 구성된 이 구조물들은 입체와 평면을 넘나든다. 이 전시는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선 컨템포러리 갤러리에서 열렸다.

www.suncontemporary.com



딘앤딕 2013 컬렉션

딘앤딕(din & dip)은 한국 전통 가구의 감성과 기능에 현대적 색채를 입혀 차별화된 가구를 선보이는 가구 디자인 스튜디오다. 과거 사랑방에서 사용하던 전통 책상 서안에 기초한 '서 데스크', 전통 가옥의 처마와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살린 '이브스 체어', 전통 장의 기능과 요소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묵 스토리지' 등은 한국 전통의 감성이 물씬 느껴진다. 그렇다고 이들이 시대에 동떨어진 낡은 디자인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3인용으로 제작된 딘앤딕 가구들은 갈수록 축소화되는 가족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독특한 감성을 살린 이들의 디자인이 해외 유명 가구 브랜드들의 침공에 맞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www.dinandip.com